

한국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서울경제 : 2009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2009. 6. 29 제41호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 II. 서울의 2/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 III. 서울의 2/4분기 기업 체감경기 전망
 - IV.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과 시사점
- 부록. 2009년 2/4분기 주요 조사 결과

요 약

최근 서울경제는 경기회복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산업생산은 2009년 1월 -25.0%로 저점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4월 -1.3%로 23.7%p 급등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내수를 대표하는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도 3월과 4월 각각 2.8%, 5.0%로 두 달 연속 플러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가 회복세로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실업률은 전국 실업률과는 달리 4월 5.0%에서 5월 4.7%로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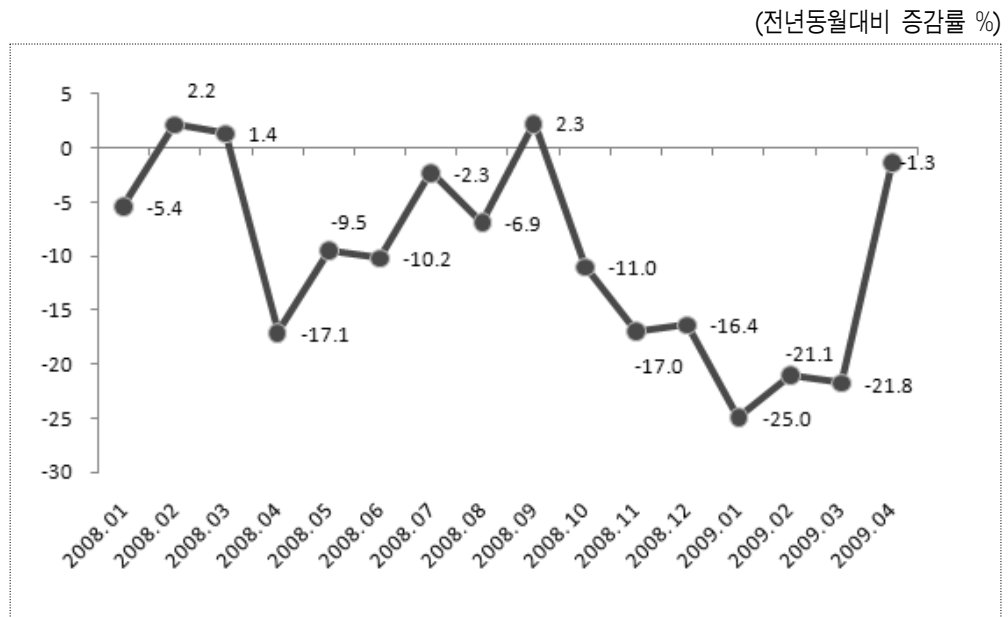
서울 시민의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소비자 체감 전망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9년 2/4분기 중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95.6로, 2008년 4/4분기 63.7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 체감경기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소재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업황실적지수」 역시 2009년 2/4분기 76.2로 2008년 4/4분기 59.7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양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2009년 2/4분기 서울의 체감 경기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체감 정도는 기업보다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번 조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년 후 생활형편과 경기판단을 나타내는 「미래생활형편지수」와 「미래경기판단지수」가 각각 110.9와 116.3으로 향후 체감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준인 100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2009년 하반기 이후에는 서울 경기는 국가경제보다 앞서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경제 지표에서 회복추이를 보이고 있는 서울경제는 3월의 추경예산 편성과 예산의 조기집행 추진에 힘입어 1/4분기 중 경기저점을 통과하여 빠른 경기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 하반기 서울의 경제성장은 상반기 -3.2%에서 하반기 1.2%의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하여 향후 U자형의 경기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반기 전국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서울의 성장세는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서울의 지속적인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년 및 30대 여성의 고용창출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재창조 사업,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한강르네상스 등의 핵심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4월 이후 서울의 산업생산 감소세 큰 폭으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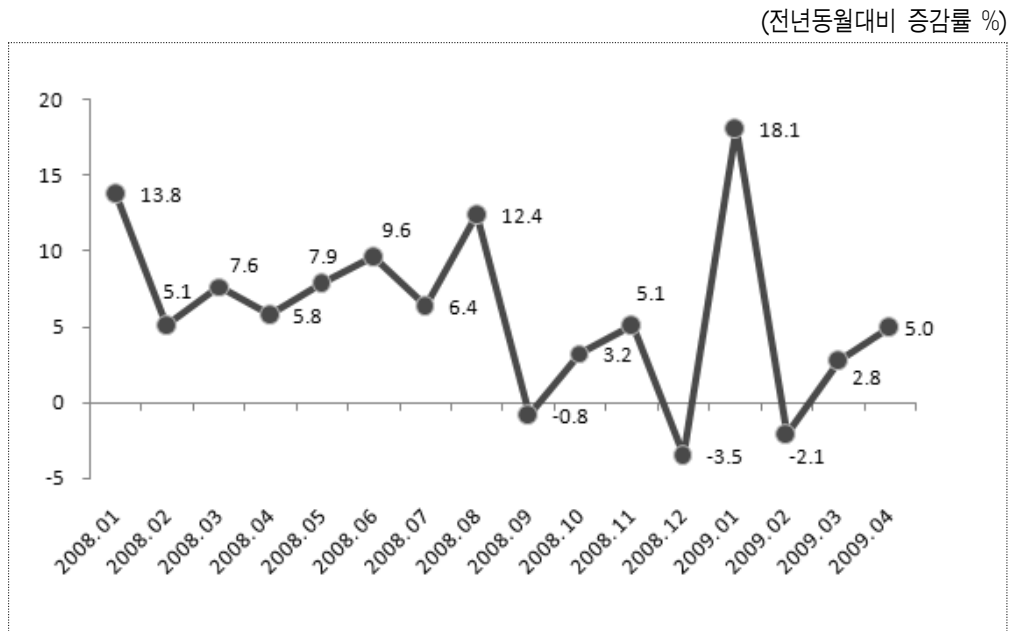
- 서울의 산업생산은 올해 4월 -1.3%로 감소세가 크게 완화되어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
 -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2008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22.7%p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으나, 4월 -1.3%를 기록하여 마이너스 성장세가 대폭 개선
 - 2008년 9월 이후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세는 1월을 저점으로 이후 급격히 개선되어 2/4분기 중 플러스 성장세로 반전 예상
 - 서울의 경기회복 속도는 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예산 조기집행 노력이 생산부문의 경기 급락세를 진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정
 - 특히 서울시는 지난 3월 SOC 투자,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2조 3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자료 : 통계청

[그림 1] 서울시 산업생산지수 증감률

- 2009년 4월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 증가율은 5.0%로 증가세가 가속되어 소비부문의 회복세도 가시화
 - 금융위기 이후 내수침체로 -3.5%까지 하락했던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2009년 4월 5.0%를 기록하며 플러스 성장세로 반전
 - 소비 관련 지표들은 부분적으로 하락세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계절적 특수성 등의 영향으로 상승과 하락 폭이 커 불안정한 모습 지속
 - 소비의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으나 상승폭이 미미하여 본격적인 내수회복으로 판단하기는 불명확
 - 3~4월 혼수, 이사철을 맞이하여 대형마트보다 백화점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
 - 4월 서울시 백화점 1개점 평균 매출액은 366억 원이나, 대형마트 1개점 평균 매출액은 90억 원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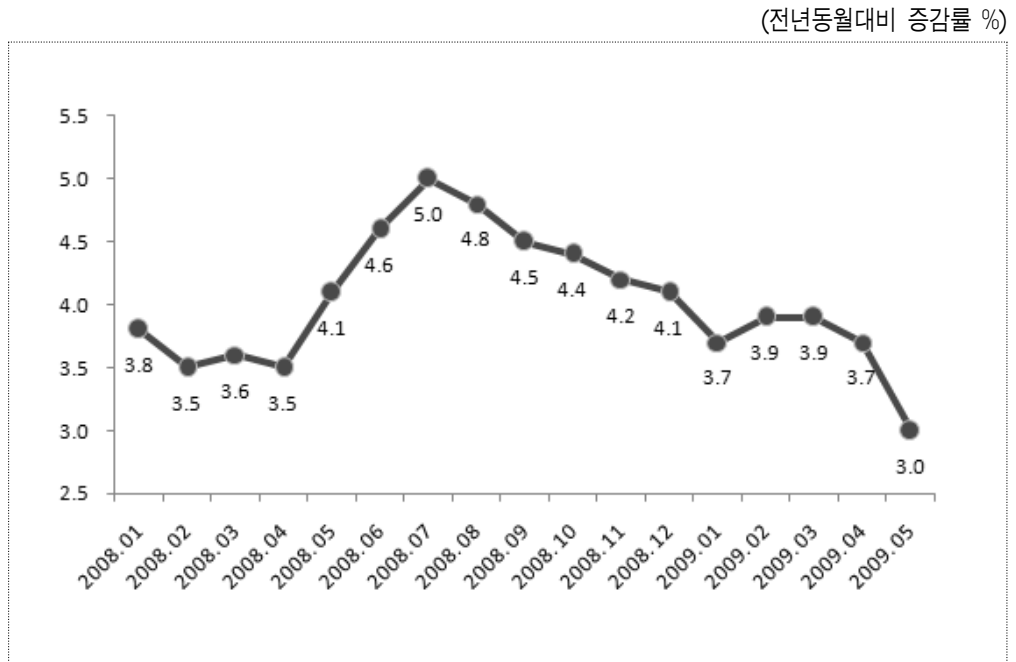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2] 서울시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 증감률

서울의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진정 국면

- 서울의 5월 소비자물가는 3.0%로 2008년 평균 소비자물가 4.2%에 비해 크게 안정
 - 서울시 물가는 지난해 7월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으나, 올 1월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 후 최근 3%대로 다시 안정세에 진입
 - 이는 환율 안정과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하여 물가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추정
 - 전월대비 서울의 소비자물가 동향은 전국의 16개 시도별 소비자물가 동향의 평균인 0.0%를 유지
 - 기본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했으며, 세부적으로 전세 2.2%, 지역난방 10.1%, 도시가스 4.7% 상승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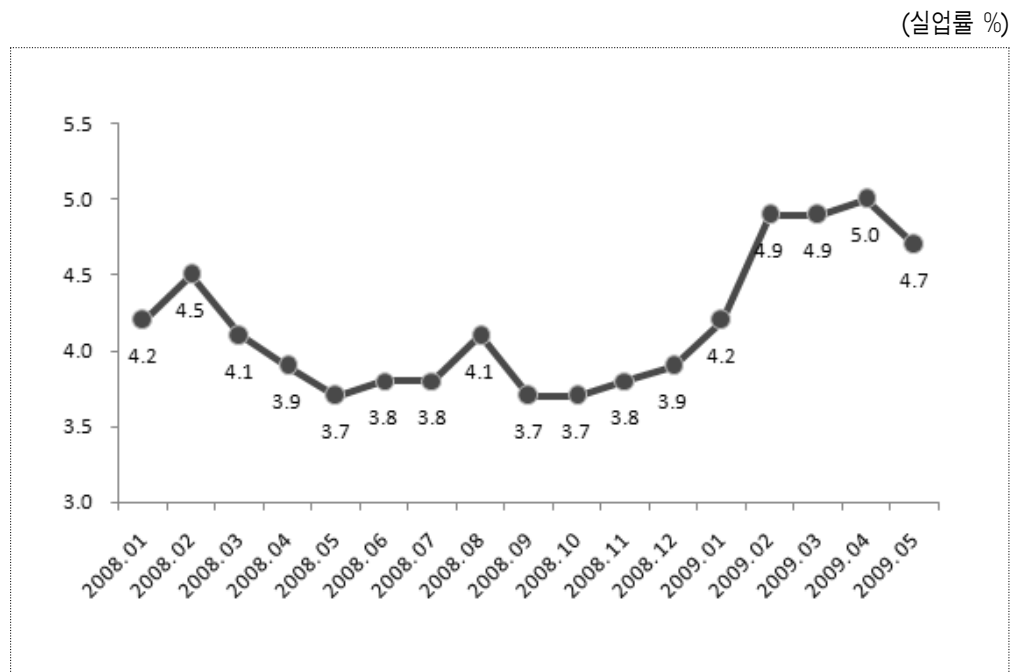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3] 서울시 소비자물가 증감률

서울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

- 서울의 5월 실업률은 4.7%로 2008년 평균 실업률 3.9% 보다 높은 실정
 - 최근의 실업률은 4월 5.0%에서 5월 4.7%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4.0%대의 높은 수준 유지
 - 실업률 악화 추세가 다소 진정된 원인으로 공공부문 인턴십 등 일자리 확대정책 효과로 파악
 - 서울의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2009년 2/4분기 8.9%로 전국 평균 8.6%보다 0.3%p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
 - 주요 취업계층인 청년층의 취업을 위해서는 인턴십 제도 등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고용대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대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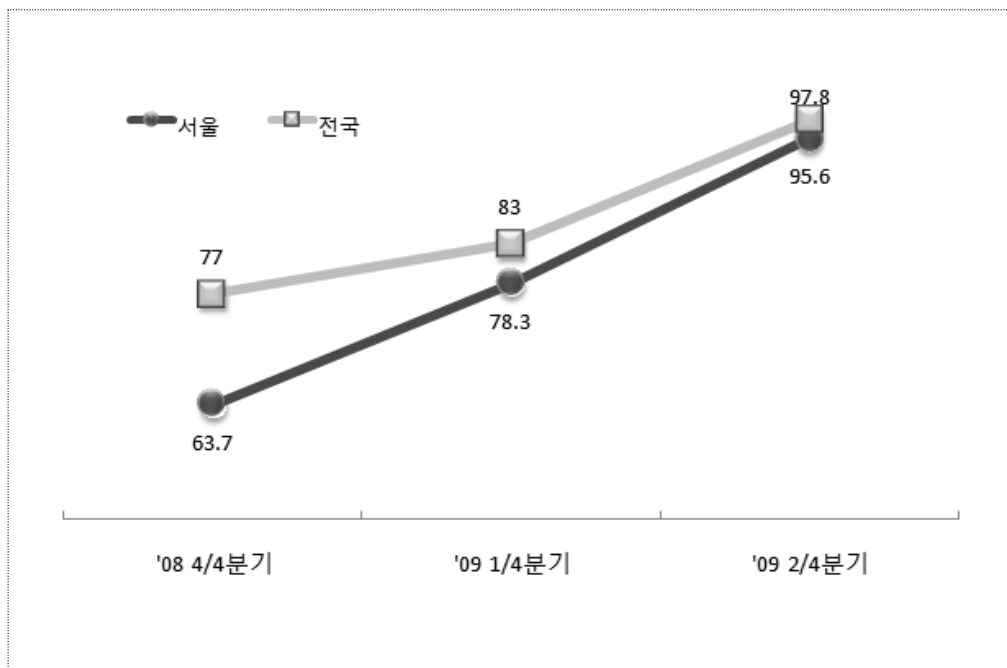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4] 서울시 실업률

II. 서울의 2/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서울의 소비심리가 큰 폭으로 개선되어 전국보다 빠른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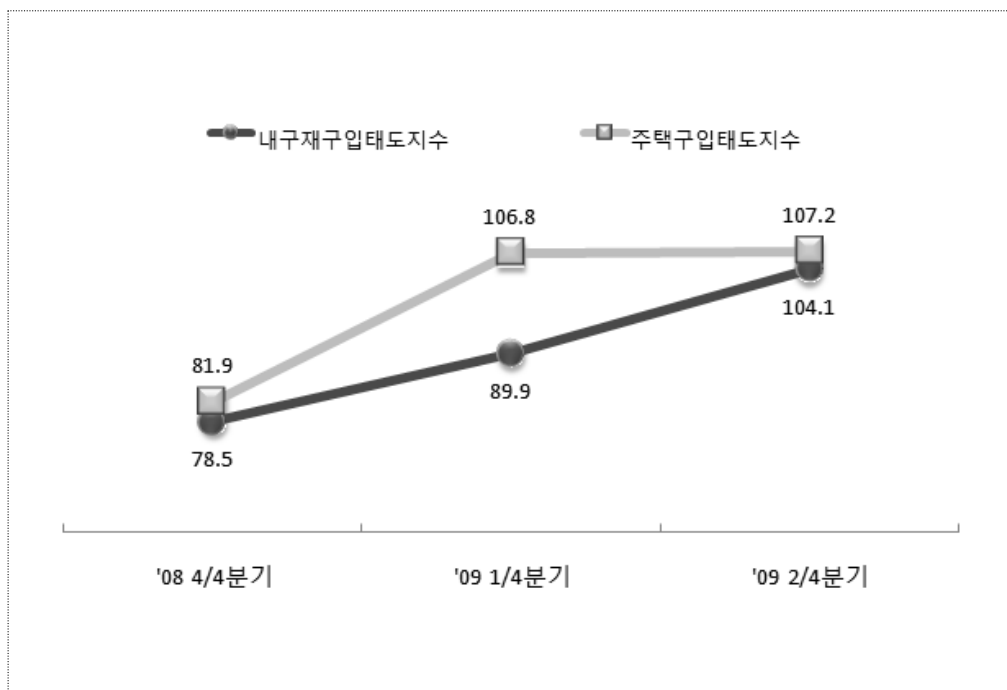
- 2009년 2/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95.6으로 1/4분기보다 17.3p 크게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상승폭 14.8p보다 높은 추세
-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2008년 4/4분기 63.7에서 2009년 1/4분기 78.3, 2/4분기 95.6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 전국의 「소비자태도지수」 또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 「소비자태도지수」의 상승폭이 더 높아 서울의 경기 회복세가 더 빠른 것으로 판단



주 : 전국지수는 삼성경제연구소 소비자태도조사를 이용하여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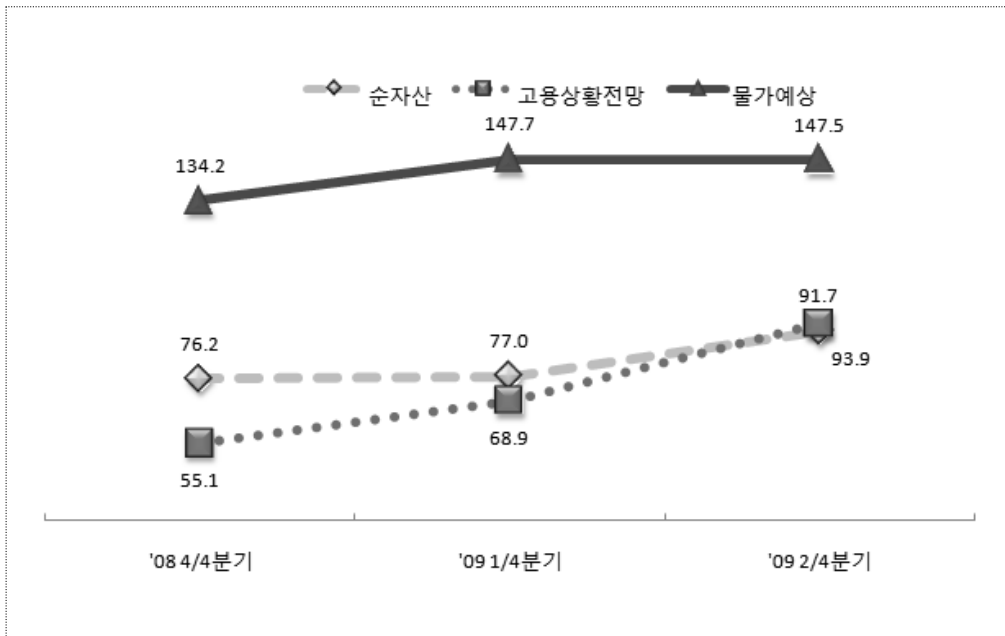
[그림 5] 소비자태도지수

- 2009년 2/4분기 서울의 「내구재구입태도지수」와 「주택구입태도지수」 모두 기준치(100)를 넘어 소비심리 크게 호조
 - 2009년 2/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지난 2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상회한 104.1을 기록
 - 이는 1/4분기보다 14.2p 높아진 것으로, 내구재구입 심리가 1/4분기보다 크게 호전
 - 2009년 2/4분기 「주택구입태도지수」는 1/4분기 106.8과 비슷한 수준의 107.2를 기록하여, 개선 정도가 미미
 -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로 주택구입 심리 상승 요인은 1/4분기에 이미 반영되었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문제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그 증가폭이 둔화된 것으로 예측



[그림 6]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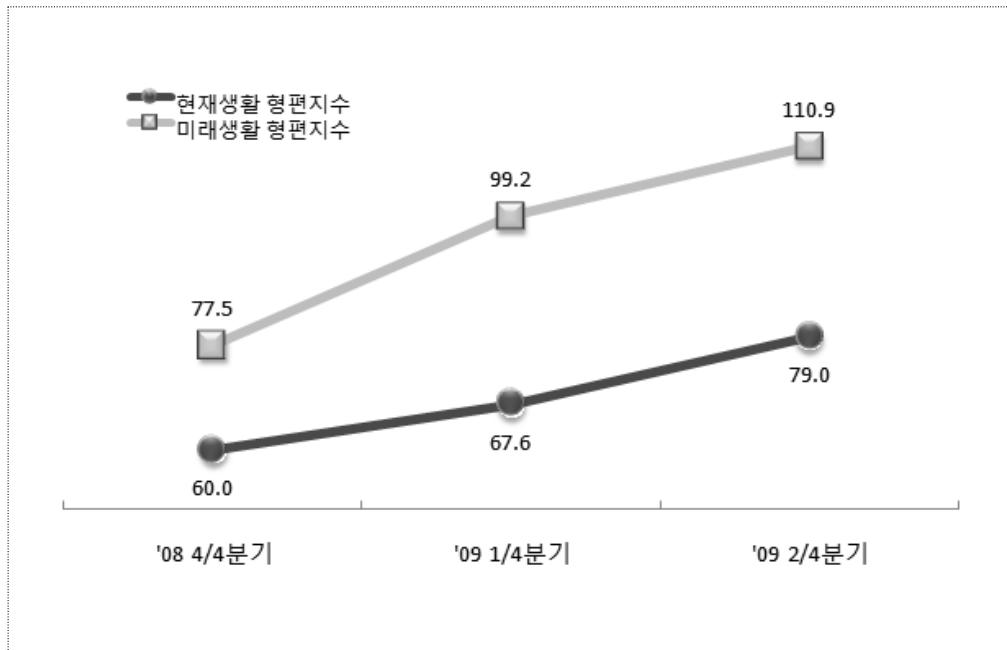
- 순자산과 고용상황 관련 지수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물가 관련 지수는 여전히 불안
 - 2009년 2/4분기 「순자산지수」는 1/4분기에 비해 14.7p 상승하여 이전 상승폭 0.8p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기준치(100)에 미달하여 여전히 가계 순자산의 증가 미미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4분기 93.9로 1/4분기 68.9보다 25p 상승
 - 이는 기준치(100)에는 미달이나 고용상황 악화 정도는 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
 - 2009년 2/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전분기보다 0.2p 떨어진 147.5를 기록
 - 그러나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1/4분기에 이어 「물가예상지수」가 기준치(100)를 훨씬 상회하여 물가불안 심리가 여전히 존재



[그림 7] 순자산, 고용전망, 물가예상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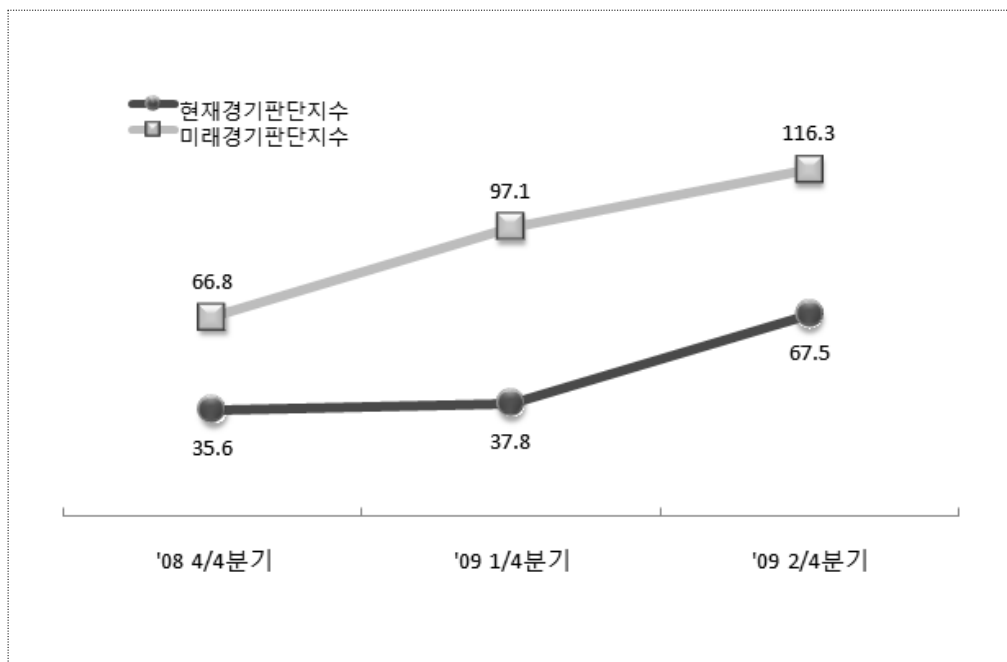
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 큰 폭 개선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 가시화 전망

- 서울의 「미래생활형편지수」는 110.9로 1년 후 생활 형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지표인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009년 2/4분기 각각 79.0, 110.9를 기록
 - 2/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1/4분기 대비 11.4p 증가로 이전 상승 폭 7.6p보다 커서 소비자의 생활형편 회복속도가 빠를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80 이하의 낮은 수준
 - 그러나 「미래생활형편지수」는 1/4분기보다 11.7p 증가하여 기준치 100을 훨씬 상회한 110.9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1년 후 생활형편이 현재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그림 8] 생활형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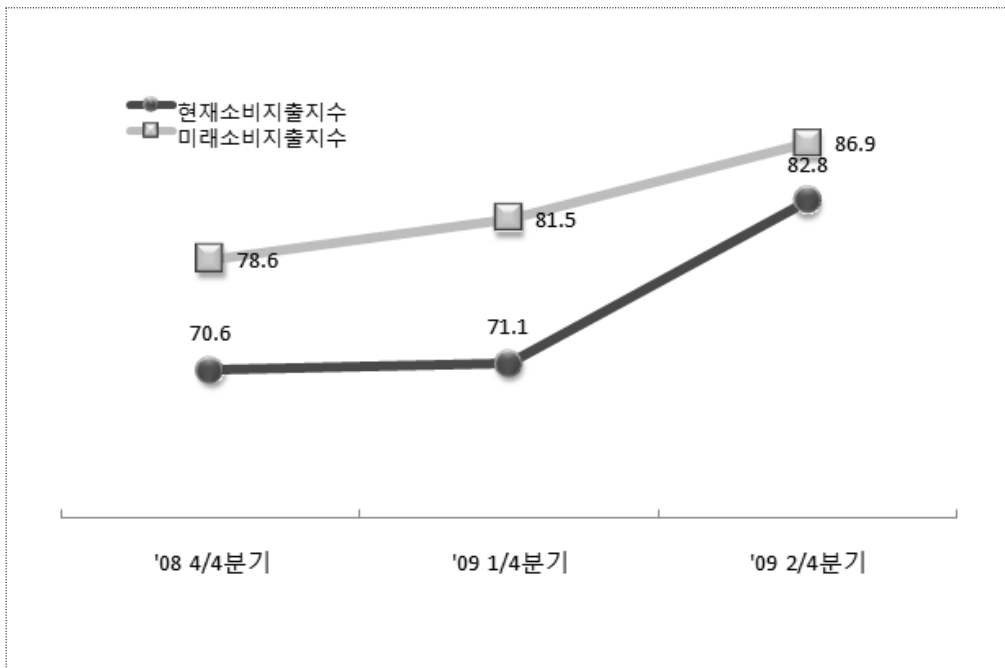
-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도 116.3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1년 후 경기
에 대한 소비자 기대심리가 큰 폭으로 상승
 - 2009년 2/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는 1/4분기 대비 29.7p 상승하여 이
전 상승폭 2.2p에 비해 크게 확대
 - 「미래경기판단지수」는 1/4분기 대비 19.2p 상승하여 기준치(100)를 상
회함에 따라 1년 후 경기를 보다 긍정적으로 전망
 - 현재와 미래의 「경기판단지수」가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향후
경기회복세에 대한 기대 확대



[그림 9] 경기판단지수

서울의 전반적인 소비지출은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

-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86.9로 1년 후 전반적인 소비지출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
 - 2/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82.8로 1/4분기보다 11.7p 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여 소비지출 심리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에는 미달
 - 그러나 2/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는 1/4분기보다 5.4p 증가했으나 2분기 연속 기준치(100)에 미달하여, 향후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지출에 대한 소비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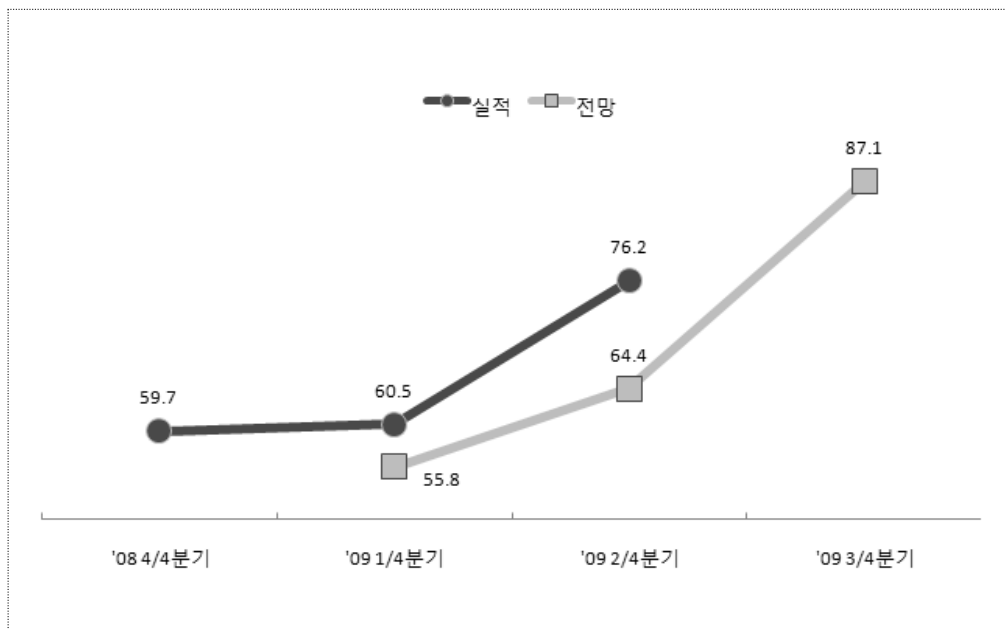


[그림 10] 소비지출지수

Ⅲ. 서울의 2/4분기 기업 체감경기 전망

서울의 기업 체감경기 큰 폭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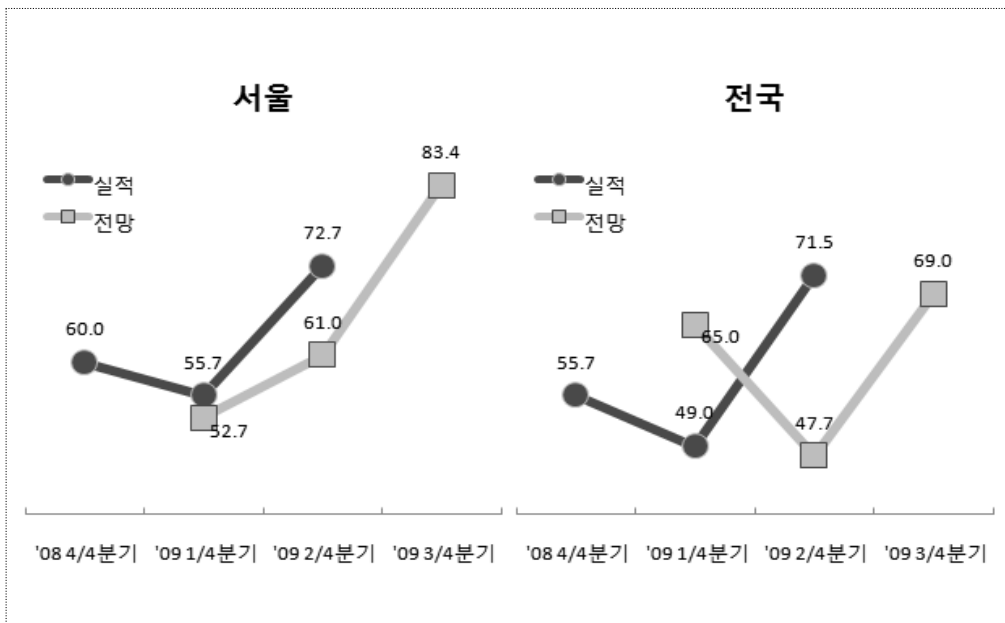
- 2009년 2/4분기 업황 실적 및 전망은 전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기준치(100)에 못 미쳐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판단하기는 불확실
 - 2009년 2/4분기 주가, 환율 안정세 및 수출 호조에 불구하고 업황 실적 지수는 76.2를 기록
 - 그러나 이는 1/4분기에 비해 15.7p 증가한 것으로 이전 증가분 0.8p보다 훨씬 커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
 - 3/4분기 업황 전망은 87.1로 2/4분기보다 10.9p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기준치(100)에 못 미쳐 가시적인 회복세 기대 미미



[그림 11] 업황지수

서울의 향후 기업 체감경기 전국보다 크게 개선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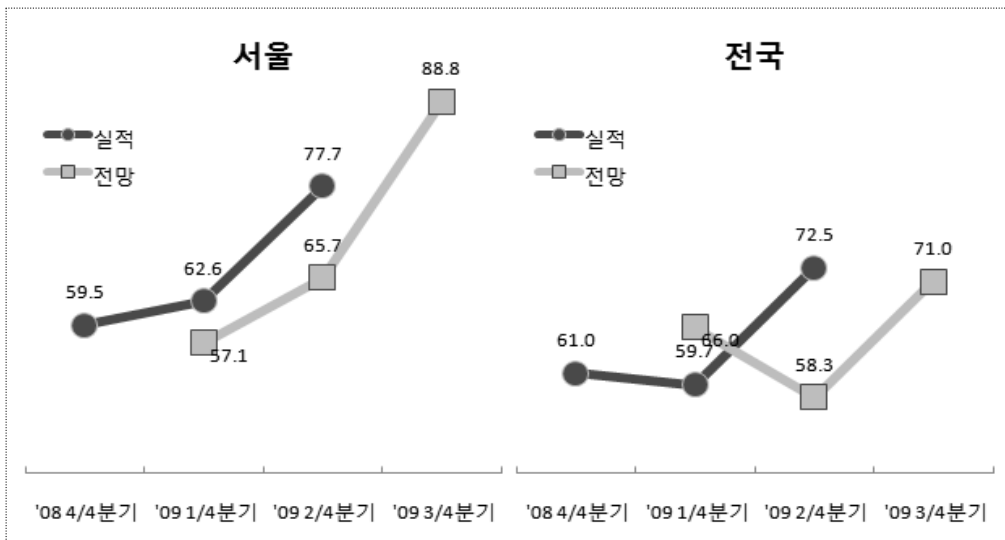
- 서울 제조업 부문의 업황 전망지수가 전국보다 14p 높아 향후 서울 지역 기업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더 클 것으로 예상
- 서울의 제조업 업황 실적지수는 1/4분기 55.7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17p 상승하면서 큰 폭으로 개선
 - 서울의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도 83.4를 기록하여 전국의 전망지수보다 14p나 상회
 - 서울의 업황지수는 실적보다 전망지수가 10p 이상 더 큰 반면 전국의 업황지수는 실적보다 전망지수가 실적지수보다 다소 떨어져 서울지역의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큰 것으로 전망



주 : 전국지수는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조사를 이용하여 월별지수를 분기내 평균으로 환산

[그림 12] 제조업 업황지수

- 서울의 비제조업 2/4분기 업황 실적지수는 전국과 비슷하나 3/4분기 업황 전망지수는 전국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
- 서울의 비제조업 업황지수는 실적과 전망 각각 전국지수보다 5.2p, 17.8p 높게 나타나고 상승폭 또한 더 큰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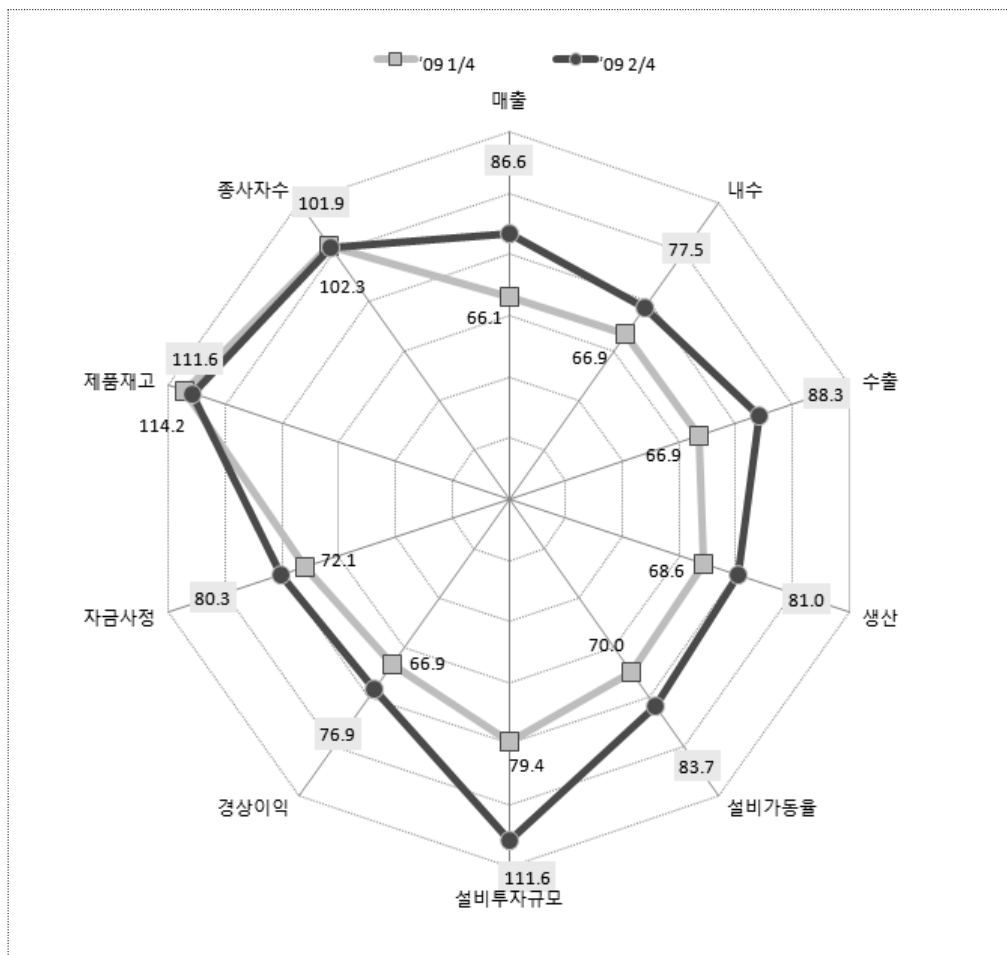


주 : 전국지수는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조사를 이용하여 월별지수를 분기내 평균으로 환산

[그림 13] 비제조업 업황지수

- 2/4분기 각 부문별 실적지수는 대부분 1/4분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기준치 100 이하로 개선 미미
- 수출 부문 실적지수가 88.3으로 1/4분기 대비 21.4p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생산, 설비가동률, 매출실적지수 또한 각각 12.4p, 13.7p, 20.5p 증가
- 내수 부문 실적지수는 1/4분기 대비 10.6p 증가하여, 전반적인 업황실적지수 상승에 영향
- 기업의 경상이익 지수는 76.9로 타 부문의 실적지수보다 작지만 1/4분기 대비 10.0p 증가

- 이는 수출 및 내수 부문의 상황이 호전되면서 경상이익이 개선되고 있으나 그 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을 의미
- 설비투자 규모는 1/4분기 대비 32.2p 증가하여 111.6을 기록, 기준치(100)를 상회하여 부문별 실적지수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향후 경기회복에 대비하여 기업이 설비투자를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
- 종사자 수는 기준치(100)에 근접하여 추가 고용에 대한 여력이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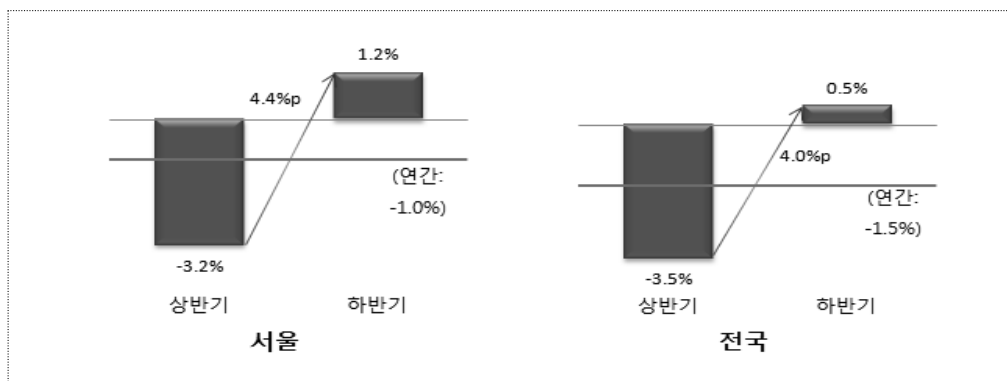
[그림 14] 각 부문별 실적 지수

IV.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과 시사점

1. 서울경제 전망

2009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국보다 0.7%p 높은 성장으로 국가경제 견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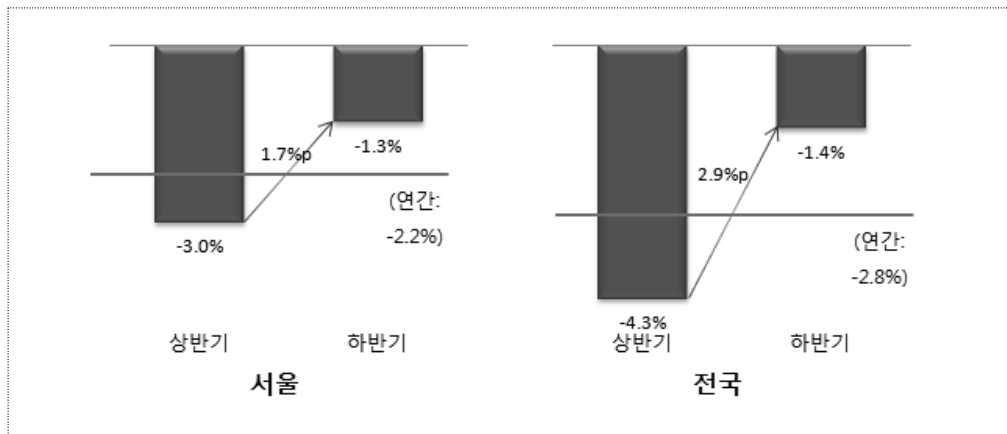
- 서울경제는 하반기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국의 0.5%보다 빠른 속도로 경기회복 예상
 - 서울경제는 상반기 -3.2%의 성장에 이어 하반기에 빠른 속도로 경기가 회복되어, 1.2% 성장으로 반전 예상
 - 2009년 서울의 성장률은 연간 -1.0%로 전국의 성장률 -1.5%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나라 경기회복세를 견인
 - 서울의 산업생산은 1월 -27.1%로 전국의 -25.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4월 서울은 -1.3%로 전국의 -8.2%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세 달성
 - 따라서 서울은 1/4분기 중 경기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하반기에는 전국보다 빠른 속도로 경기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자료 : 서울은 SDI에서 전망, 전국은 기획재정부(2009.6.25) 전망치 참조

[그림 15] 2009년 서울 및 전국 성장 전망

- 실질소득 감소로 2009년 서울의 가계소비는 연간 -2.2%로 감소 예상
 - 서울의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3월과 4월 각각 2.8%, 5.0%로 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률 기록
 - 2/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도 95.6을 기록, 2008년 4/4분기 경제 위기로 추락한 소비심리 점차 회복 추세
 - 2009년 서울의 소비증가율은 연간 -2.2%로, 전국 -2.4%보다 소폭 개선 전망
 - 전반적으로 3/4분기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가시화로, 서울의 소비 지출은 상반기 -3.0%에 이어 하반기에도 -1.3%로 큰 폭으로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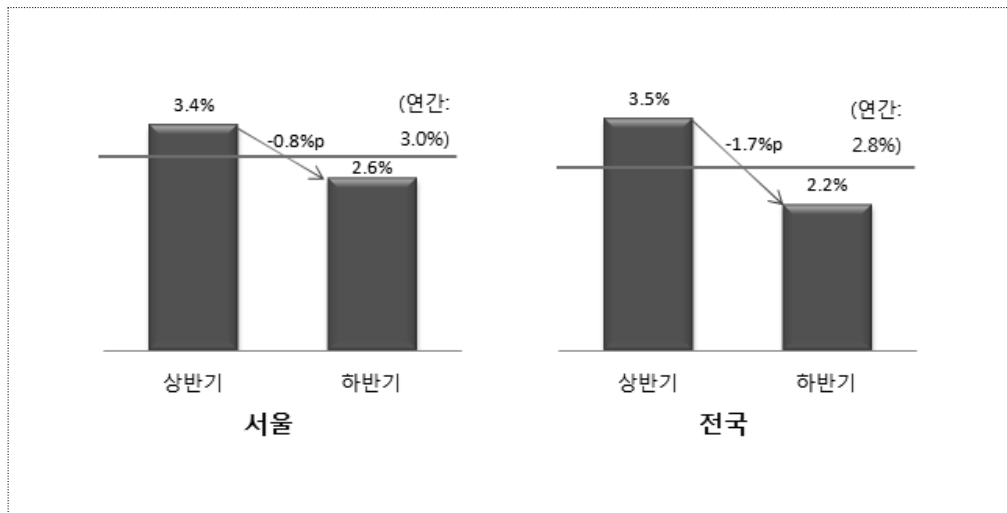
자료 : 서울은 SDI에서 전망, 전국은 삼성경제연구소(2009.6.3) 전망치 참조

[그림 16] 2009년 서울 및 전국 소비 전망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불안 요인 상존

- 서울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연간 3.0%로 안정세 유지
 - 최근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환율과 국제유가의 소폭 증가의 영향으로 2009년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연간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09년 3월 3.9%에서 5월 3.0%로 지속적 하락세 유지
- 환율 및 유가 안정으로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상반기 3.4%, 하반기 2.6%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그러나 6월 택시요금 인상,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 계획, 최근 급등하고 있는 서울의 휘발유가격(1월 1,441.6원/리터, 6월 3주째 1,705.2원/리터)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 물가 상승 가능성도 존재



자료: 서울은 SDI에서 전망, 전국은 삼성경제연구소(2009.6.3) 전망치 참조

[그림 17] 2009년 서울 및 전국 물가 전망

2. 정책적 시사점

서울시 재정대책의 가시화로 빠른 경기회복 국면 진입

- 서울의 주요 경기지표는 1/4분기 중 경기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 U자형 경기회복세에 진입

-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등 주요 경기지표는 2009년 1월을 저점으로 이후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서울은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 빠른 경기회복세는 급격한 내수 침체를 우려한 서울시의 신속한 추경편성과 예산 조기집행 등의 정책 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하반기 서울의 경기회복세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향후 서울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심 재창조사업,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한강르네상스 등의 핵심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필요

지속적인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 필요

- 서울시 청년 및 30대 여성의 고용 창출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 집행 필요
- 서울의 청년실업은 2009년 1/4분기 8.9%로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30대 여성실업 또한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고용대책 필요
 - 청년실업과 30대 여성의 실업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출산·육아 등 30대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영위 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 대책 필요
- 녹색성장에 기초한 전략형 그린에코 산업과 도심 특화형 중소기업 지원으로 성장 원동력 창출

- 향후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인적자본 및 R&D에 기초한 환경·에너지·바이오 등 그린에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 필요
- 도심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도심 특화형 중소기업(문화·관광, 애니메이션, 디자인, 패션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서울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27

hspark@sdi.re.kr

부록. 2009년 2/4분기 주요 조사 결과

<표 1> 서울지역 소비자 태도 지수

| | 소비자 태도 | 생활 형편 | | 경기 판단 | | 구입 태도 | |
|-------------|--------|---------|---------|---------|---------|----------|---------|
| | | 현재 생활형편 | 미래 생활형편 | 현재 경기판단 | 미래 경기판단 | 내구재 구입태도 | 주택 구입태도 |
| 2008년 4/4분기 | 63.7 | 60.0 | 77.5 | 35.6 | 66.8 | 78.5 | 81.9 |
| 2009년 1/4분기 | 78.3 | 67.6 | 99.2 | 37.8 | 97.1 | 89.9 | 106.8 |
| 2009년 2/4분기 | 95.6 | 79.0 | 110.9 | 67.5 | 116.3 | 104.1 | 107.2 |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 지수

| | 소비지출 | | 순자산 | 고용상황 | 물가예상 |
|-------------|---------|---------|------|------|-------|
| | 현재 소비지출 | 미래 소비지출 | | | |
| 2008년 4/4분기 | 70.6 | 78.6 | 76.2 | 55.1 | 134.2 |
| 2009년 1/4분기 | 71.1 | 81.5 | 77.0 | 68.9 | 147.7 |
| 2009년 2/4분기 | 82.8 | 86.9 | 91.7 | 93.9 | 147.5 |

<표 3> 서울지역 기업 경기 지수

| 구 분 | 실적 | | | 전망 | | |
|--------|------------|------------|------------|------------|------------|------------|
| | ' 08 4/4분기 | ' 09 1/4분기 | ' 09 2/4분기 | ' 09 1/4분기 | ' 09 2/4분기 | ' 09 3/4분기 |
| 매출 | 68.3 | 66.1 | 86.6 | 66.5 | 67.9 | 87.2 |
| 내수 | 63.1 | 66.9 | 77.5 | 60.2 | 71.4 | 91.6 |
| 수출 | 77.8 | 66.9 | 88.3 | 75.2 | 67.3 | 88.3 |
| 생산 | 73.1 | 68.6 | 81.0 | 65.9 | 68.3 | 87.6 |
| 설비가동률 | 74.7 | 70.0 | 83.7 | 74.1 | 72.9 | 87.3 |
| 설비투자규모 | 75.3 | 79.4 | 111.6 | 70.5 | 78.0 | 112.0 |
| 경상이익 | 58.5 | 66.9 | 76.9 | 55.5 | 67.3 | 87.2 |
| 자금사정 | 63.6 | 72.1 | 80.3 | 61.0 | 72.8 | 94.8 |
| 제품재고 | 118.4 | 114.2 | 111.6 | 117.2 | 108.2 | 112.0 |
| 종사자수 | 97.8 | 102.3 | 101.9 | 99.0 | 103.1 | 99.7 |

본 조사는 2008년 3/4분기 이후 서울지역 표본 1000가구와 5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표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3.1%임. (2009년 2/4분기 조사 시점은 2009년 5월말)